

해외출장(미국 시카고)보고서

부서 : 공간교통연구실

자료제공 : 민현석

작성일 : 2023년 08월 일

게시요망일 : 2023년 월 일

역사적 풀만 재단

풀만국립역사공원(Pullman National Historical Park)은 시카고에 위치한 역사보존지구로, 19세기에 건립된 산업도시인 풀만타운(Pullman town)에서 시작되었다. 풀만타운은 철도차량 제조회사인 풀만사(Pullman Company)의 공장 및 관련 노동자들의 거주지로 건립되었다. 호텔 플로렌스(Hotel Florence)와 풀만사의 행정동 건물, 노동자 주택 등 역사적 건축물이 다수 남아 있어 1970년 12월 30일 국가 사적지(National Historic Landmark)로 지정되었다. 현재 풀만타운의 역사적 가치와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역단체인 역사적 풀만 재단(Historic Pullman Foundation, HPF)이 풀만타운의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풀만타운의 역사

조지 풀만(George Mortimer Pullman, 1831-1897)은 1867년 풀만 팰리스 철도차량 회사(Pullman Palace Car Company)를 설립하였다. 풀만은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한 생활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그는 시카고 외곽에 새로운 공장을 건립하면서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였다. 1880년 풀만사는 풀만 토지 조합(Pullman Land Association) 설립하고 시카고 경계 밖의 남쪽 토지 약 16.2km²를 구입하여 건축가 솔론 S. 비만(Solon S. Beman, 1853-1914), 조경 설계사 네이션 F. 바렛(Nathan F. Barrett, 1845-1919) 및 토목 기술자 벤제트 윌리엄스(Benzette Williams, 1844-1917)를 고용하여 풀만타운을 조성하였다.

풀만은 먼저 풀만타운의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벽돌자재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 남쪽에 벽돌공장을 건립하였다. 노동자 주택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앤 여왕 스타일로 이곳에서 생산한 붉은 벽돌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주택은 가스 및 수도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풍부한 양의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앞뒤 마당은 개인적인 녹지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주민들에게 개방된 넓은 공원이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주거지의 유지 보수는 임대료에 포함되어 쓰레기 수거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1883년 경제 불황으로 칩대용 철도차량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하자, 풀만사는 악화된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였다. 하지만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주거 임대료는 줄어들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주거 임대료의 부담이 늘어나자 결국 1894년 5월 11일 노동자들은 전면 파업을 산포하였고 6월 27일 미국 철도 노동자 연합(American Railway Union)이 동조하며 디트로이트 서쪽의 철도 교통이 대부분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연

방 정부는 연방군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풀만타운 보존운동과 역사적 풀만 재단

1960년 공원 건립으로 풀만타운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였다. 풀만타운의 주민들은 풀만시민단체(Pullman Civic Organization)를 결성하여 풀만타운의 철거를 반대하였다. 풀만시민단체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풀만타운의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을 위한 여러 운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1969년 약 120헥타르에 이르는 지역이 국가 등록 역사지구(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로 지정되었으며, 이듬해에는 국가 역사 유적지(National Historic Landmark)로 결정되었다. 1972년에는 공장의 남쪽 지역이 시카고 유적지(Chicago Landmarks)로 등록되었다.

1973년 풀만타운의 보존을 위하여 역사적 풀만 재단(Historic Pullman Foundation)이라는 비영리 기관이 설립되어 역사적 건축물의 매입을 포함한 다양한 보존활동을 진행하였다. 1975년 호텔 플로렌스와 시설물이 경매로 매각될 위기에 처했을 때, 역사적 풀만 재단은 조지 풀만의 손녀이자 호텔 플로렌스 이름의 주인공인 플로렌스 로든 밀러(Florence Lowden Miller)와 함께 호텔 및 관련 시설물을 매입하였다. 역사적 풀만 재단은 이후 마켓 홀(Market Hall)과 풀만 센터(Historic Pullman Center)를 추가로 매입하여 건축물을 복원하고 대중에게 개방하였다.

1991년 일리노이 주는 호텔 플로렌스와 풀만공장의 시계탑, 행정동 건물을 매입하여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하고 1993년 풀만타운의 북부 지역을 시카고 유적지에 추가하였다. 2015년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풀만타운을 국립기념물(National monument)로 지정하였고, 2022년 '풀만 국립 역사 공원(Pullman National Historical Park)'이 되었다.

도보 관광 프로그램

역사적 풀만 재단은 풀만 국립 역사 공원과 주립 역사 유적지의 방문을 독려하기 위하여 도보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달 첫 번째 일요일 90분 동안 진행되는 일반인 프로그램과 20명 이상의 그룹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도보 관광 프로그램의 주요 방문 장소로는 호텔 플로렌스, 시계탑과 행정 건물, 그린스톤 교회, 마켓 스퀘어, 마굿간 등이 있다.



호텔 플로렌스(좌), 시계탑과 행정 건물(중), 그린스톤 교회(우)

사업적 성과

역사적 풀만 재단은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4년 풀만 주립 유적지의 친구들(Friends of the Pullman State Historic Site)을 설립하였다. 풀만 주

립 유적지의 친구들은 일리노이 주와 협력하여 기존의 풀만 역사 웹사이트를 업그레이드하고, 풀만타운의 역사와 관련 유적지에 대한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아카이브를 개발하였다. 현재 풀만 역사 웹사이트에는 1883년과 1889년 도시 디렉토리, 1900년부터 1940년까지의 인구 조사를 비롯한 41,000개 이상의 기록과 9,200개 이상의 관련 문서 및 이미지가 관리되고 있다. 또한 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시민, 민간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방문객이 풀만타운을 찾아오고 있다.

[참고문헌]

- National Park Service <https://www.nps.gov>
- Historic Pullman Foundation <https://www.pullmanil.org>
- Pullman History <https://www.pullman-museum.org>
- 위키피디아 <https://wikipedia.org>

해외출장(폴란드 오시비엔침)보고서

부서 : 공간교통연구실

자료제공 : 민현석

작성일 : 2023년 08월 일

게시요망일 : 2023년 월 일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은 1940년 나치 독일이 폴란드 오시비엔침(Oświęcim) 외곽에 건립한 수용소로 대표적인 유대인 학살의 장소였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아우슈비츠 I, 아우슈비츠 II 비르케나우, 아우슈비츠 III 모노비츠 등 3개의 시설로 나뉘어 운영되었으며 현재는 아우슈비츠 I 과 아우슈비츠 II 비르케나우의 수용소, 가스실 및 소각장, 철조망 설치용 시멘트 기둥 등이 보존되어 추모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한 나치 독일은 폴란드의 지식인과 정치범을 수용할 목적으로 1940년 아우슈비츠 I 를 건설하였다. 1940년 5월 아우슈비츠에 30명의 첫 수용자가 도착한 이후, 폴란드 지식인과 정치범, 소련군 포로 등 수 만명의 수용자들이 수감되었다. 1941년 3월 하인리히 힘러(Heinrich Luitpold Himmler)의 시설확장 명령에 따라 이듬해 3월 아우슈비츠 I 에서 3km 떨어진 지역에 아우슈비츠 II 비르케나우가 건설되었고 같은 해 10월 군수품 생산을 위하여 아우슈비츠 I 동쪽 7km 지점에 아우슈비츠 III 모노비츠가 건립되었다. 모노비츠는 이후 화학기업 파르벤(IG Farben), 군수기업 크루프(Krupp), 엔지니어링회사 지멘스(Siemens) 등의 공장지로 이용되었다.

당초 집단수용소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절멸 수용소(Vernichtungslager)가 된 것은 이후 유대인이 이곳으로 이송되면서부터였다. 1941년 9월 소련군 포로와 유대인 수용자 800여 명이 처음 가스실에서 학살당한 것을 시작으로, 한 번에 2천여 명의 수용자가 학살당하였으며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소련군에 의하여 해방된 1945년 1월까지 백만 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특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희생당한 수감자의 90%가 아우슈비츠 II 비르케나우에서 사망하였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

해방 이후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폴란드 적십자 병원과 독일군 포로수용소로 활용되었다가, 1946년 폴란드 임시정부에게 이양되었다. 폴란드 임시정부의 문화예술부 문화예술위원회는 독일의 전쟁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아우슈비츠에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결의하고 아우슈비츠의 수감자였던 타데우시 보소비치(Tadeusz Wasowicz)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우슈비츠 보호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아우슈비츠 보호위원회는 이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진행하여 독일의 전쟁범죄에 대한 많은 역사적 사료와 증거물을 확보하였다. 이때 발굴된 사료와 증거물은 1947년 6월 14일 개관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에 보관되어

전시되고 있다.

전시내용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의 전시 프로그램은 ‘대량학살’, ‘범죄의 증거’, ‘수감자의 삶’, ‘생활환경’, ‘죽음의 블록’, ‘죽음의 벽’, ‘가스실 I’, ‘중앙 캠프 목욕실’ 등 아우슈비츠 수용소 내 시설이나 구역을 안내하는 프로그램과 폴란드와 같이 나치의 점령국이 되어 자국민이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당한 여러 나라의 역사와 이야기를 소개하는 ‘국립전시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 입구(좌), 죽음의 벽(중),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우)

‘대량 학살’에서는 다양한 민족의 수감자들이 수용소에 수감된 사연과 대량 학살 관련 물품을 전시하고 있다. 수용자들의 인적 사항을 적은 수용소 기록의 사본, 학살시설모형, 대량 학살에 사용된 자이클론B(Zyklon B)가 담겨 있던 용기 등과 함께 대량 학살 만행의 가장 극적인 증거인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이 전시되어 있다.

‘범죄의 증거’에서는 수감자들이 아우슈비츠로 끌려온 뒤 빼앗긴 개인 물품을 살펴볼 수 있다. 주방용품, 면도기, 칫솔, 신발, 옷 같은 생활용품 외에도 유대인 기도복, 장난감 등 당시 수감자들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물품들도 전시하고 있다. ‘수감자의 삶’에서는 아우슈비츠에 수감된 사람들의 입소절차와 수용소 번호 지정 및 표시, 수감자 범주 분류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당시 수감자의 일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환경’에서는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내부의 생활환경과 위생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용소 내부와 화장실 등 공개하고 있다.

‘죽음의 블록’은 아우슈비츠에서도 악명이 높았던 11블록을 공개한 곳으로 지하 감옥과 이곳에 수용되었던 수감자들의 이야기 등을 살펴볼 수 있다. 11블록의 옆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을 총살한 ‘죽음의 벽’과 유대인 학살을 위하여 최초로 사용되었던 ‘가스실 I’이 있으며 ‘중앙 캠프 목욕탕’에서는 수감자들이 어떻게 목욕과 소독을 했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

한편 국립전시관에서는 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나치 점령국가에서의 저항 운동과 희생자의 운명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60년 체코슬로바키아를 시작으로 현재 루마니아, 러시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등 10개 나라가 이곳에서 관련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유대인에 대한 쇼아(Shoah, 영미권에서 홀로코스트를 대체하는 단어) 전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190여 헥타르 면적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람하기 위해서 가이드 투어를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 투어는 3시간 30분 동안 주요 건물과 시설을 둘러보는 일반 투어와 8시간 동안 아우슈비츠의 이곳저곳을 좀 더 깊이 살펴보는 스터디 투어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의 홈페이지에서는 아우슈비츠 관련 여러 사진자료와 기록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360도 파노라마 카메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을 둘러볼 수 있는 가상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에서는 대규모 학살의 흔적과 관련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이곳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역할 이외에도 희생자들의 유품을 발굴하고 시설물을 보존하는 한편 관련 자료의 수집과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수집부에서는 수용소 및 인근지역에서 발굴된 수감자들의 유품 등 관련 물품들을 수집하고 2002년 신설된 보존 작업실에서는 발굴 수집한 유품의 보존 및 복원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수용소 생존자 협력부에서는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문서고에서는 수용소와 관련된 독일측 공식문서와 국내외 문서, 독일전범재판문서 등 수용소와 관련된 여러 문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영상기록센터에서는 수집된 여러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기록을 장기 보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우슈비츠 역사조사연구소에서는 수용소 희생자들의 신원 파악 물론 그간 연구가 미흡하였던 독일 SS친위대 조직에 대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 Memorial and Museum Auschwitz-Birkenau <https://www.auschwitz.org>
- 위키피디아 <https://wikipedia.org>

해외출장(독일 베를린)보고서

부서 : 공간교통연구실

자료제공 : 민현석

작성일 : 2023년 08월 일

게시요망일 : 2023년 월 일

체크포인트 찰리 박물관

체크포인트 찰리 박물관(Museum Haus am Checkpoint Charlie)은 냉전 시대 동서로 분단되었던 베를린의 역사를 회고하는 민영 박물관이다. 박물관의 명칭은 과거 이곳 인근에 설치하였던 체크포인트 찰리 검문소에서 차용하였으며, 베를린 장벽과 관련된 여러 전시를 기획하고 있어 장벽 박물관(Mauermuseum)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과거 자유를 찾아 동베를린을 탈출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관련 사진, 탈출 장비, 기록 등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또한 간디(Gandhi), 라울 발렌베리(Raoul Wallenberg) 등 여러 인권운동가의 업적과 우크라이나, 북한 등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나라들의 현황을 알리는 기획전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체크포인트 찰리

체크포인트 찰리는 1961년에 건립된 검문소로 프레드리히스트라췌(Friedrichstraße)를 중심으로 분할된 소련과 미국의 점령지를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다. 소련군과 미국군이 이곳에 배치되어 일반인의 점령지 출입을 제한하였으나 엄격한 검문소 관리가 이루어졌던 소련군과는 달리 미군의 경우 절차가 느슨하여 서베를린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후 베를린을 통한 탈동독 현상이 심화하자 소련은 연합군의 베를린 철수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서방이 무시하면서 1961년 6월 ‘베를린 위기’가 발생하였다. 결국 소련의 지원으로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었고 미국은 이러한 소련의 대응에 장벽을 경계로 탱크 등 군 병력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찰리 검문소 앞에서 급기야 미국과 소련의 탱크가 대치하는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1962년 8월 서베를린으로 넘어오려던 페터 페히터(Peter Fechter)가 체크포인트 찰리에서 동베를린 국경수비대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경을 넘다가 다친 페터 페히터는 미군의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동베를린 영토에 있는 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었다. 총에 맞아 신음하는 페터 페히터를 수많은 서베를린 군중들이 지켜봤고, 동베를린 국경수비대가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이내 사망하였다. 이 사건으로 소련을 향한 서베를린 시민들의 항의 집회가 일어났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은 미군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다. 페터 페히터의 죽음은 분단의 아픔과 자유에 대한 열망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고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체크포인트 찰리도 기능을 다 하게 되었다. 1990년 6월 22일 베를린을 분할 점령하였던 4개 연합국과 동독·서독의 외무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체크포인트 찰리가 철거되면서, 30여 년의 역사가 마무리되었다.



체크포인트 찰리 국경 검문소 모형(좌), 페터 페히터 추모비(중), 체크포인트 찰리 박물관(우)

체크포인트 찰리 박물관

1961년, 동독정부는 베를린을 동서로 나누었던 국경선을 따라 장벽을 쌓기 시작하였다. 155km에 이르는 이 장벽은 30년 가까이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그리고 나아가 독일 국민 사이를 나누는 경계선이 되었다. 1962년 10월 19일, 라이너 힐데브란트(Rainer Hildebrandt)의 주도하에 베를린 장벽이 건설된 8월 13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8월 13일 연구회(Arbeitsgemeinschaft 13. August, 이하 연구회)’를 결성하고 장벽 인근의 베르나우어 슈트라세(Bernauer Straße)에 자유를 찾아 서베를린으로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작은 박물관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1963년 6월 14일, 이 조그마한 박물관은 프리드리히슈트라세(Friedrichstraße)의 ‘체크포인트 찰리’ 옆으로 이전하여 체크포인트 찰리 박물관(Museum Haus am Checkpoint Charlie)이 되었다.

전시내용

체크포인트 찰리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전시 프로그램은 인권을 주제로 크게 냉전 시대 체크포인트 찰리를 중심으로 베를린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베를린’과 전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세계’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먼저 ‘베를린’은 ‘벽’, ‘체크포인트 찰리에서 일어난 일들’, ‘창의적인 탈출’, ‘탈출 이야기’, ‘베를린 - 전선 도시에서 유럽의 다리까지’ 등 5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벽’에서는 1961년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어 1989년 무너질 때까지의 베를린 장벽에 대한 역사와 베를린 장벽 관련 사진, 문서, 물건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체크포인트 찰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에서는 동서로 분단되었던 베를린의 가장 유명한 국경 검문소가 있던 체크포인트 찰리에서 발생하였던 시민들의 시위와 유명한 탈출 사건, 그리고 체크포인트 찰리 철거 행사 등에 관한 여러 전시물을 살펴볼 수 있다. ‘창의적인 탈출’에서는 서독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동독 사람들이 고안하였던 다양하고 창의적인 탈출 장비들을 전시하고 있다. 개조된 차량에서부터 열기구, 발트해를 건너간 소형잠수함과 자작 모터가 달린 비행기까지 동독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여러 탈출 수단과 함께 이들의 탈출 경로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함께 첨부하였다.

‘탈출 이야기’에서는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탈출에 실패한 사람들과 탈출을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있다. 1962년 국경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총에 맞아 사망한 피터 페히터(Peter Fechter)에서부터 7명의 동독 사람을 차량 트렁크에 숨겨 탈출시켰던 하롤트 슈바르츠(Harold E. Schwartz), 오스트리아인으로 위장하여 탈출에 성공한 사람 등 여러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를린 - 전선 도시에서 유럽의 다리까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던 베를린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다.

한편 ‘세계’에서는 ‘자유를 위한 NATO의 미션’, ‘간디에서 발레사까지’, ‘라울 발렌베르그’, ‘로날드 레이건’, ‘우크라이나’, ‘북한’, ‘세계의 종교’ 등 개인, 단체, 나라 등 전 세계의 평화와 인권에 관한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유를 위한 NATO의 미션’에서는 NATO의 역사와 관련 물품을 전시하고 있다. ‘간디에서 발레사까지’, ‘라울 발렌베르그’, ‘로날드 레이건’에서는 평화와 인권을 위하여 몸바친 개인의 삶과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우크라이나’, ‘북한’에서는 각 나라에서 겪고 있는 평화와 인권에 대한 위협과 아픔을 방문객에게 알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종교’에서는 비록 철학과 전통, 그리고 언어는 다르지만 세계 평화라는 공유된 윤리적 규범과 가치를 갖고 있는 여러 종교의 메시지와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체크포인트 찰리 박물관에서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진행되는 1시간 가량의 가이드 투어도 운영하고 있다. 개인 방문자와 그룹 방문자를 위한 가이드와 함께 학교 수업의 일부로 특별히 기획된 테마 투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폴란드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오디오 가이드와 함께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체크포인트 찰리와 관련된 여러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사업결과

체크포인트 찰리 박물관이 설립되었던 초기에는 전시, 도서관, 강연, 출판 사업 등 일반적인 박물관의 업무와 함께 동독 사람들의 탈출을 돕는 센터로서의 정치적인 역할을 하며 정부로부터 공적 보조금을 일부 지원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1990년 10월 3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이후 정치적인 센터로서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정부로부터 받는 공적 보조금 또한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라이너 힐데브란트의 아내 알렉산드라 힐데브란트(Alexandra Hildebrandt)의 주도 아래 체크포인트 찰리 박물관을 냉전시대의 베를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하면서 유럽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박물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2002년 연구회가 자선 단체 자격을 포기하면서 완전한 민간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체크포인트 찰리 박물관은 매년 850,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베를린의 최고 관광 명소이다.

[참고문헌]

- Mauer Museum: Haus am Checkpoint Charlie <https://www.mauermuseum.de>
- Berlin <https://www.berlin.de>
- Visit Berlin <https://www.visitberlin.de>
- 위키피디아 <https://wikipedia.org>
- World Korean, 2022.03.31. ‘목숨 건 탈출’ 전시하는 베를린의 ‘체크포인트 찰리 박물관’

해외출장(독일 베를린)보고서

부서 : 공간교통연구실

자료제공 : 민현석

작성일 : 2023년 08월 일

게시요망일 : 2023년 월 일

베를린 장벽 기념관

과거 동서 베를린을 구분하던 베르나우어 스트라쎬(Bernauer Straße)에 위치한 베를린 장벽 기념관은 분단의 역사를 기억하고 베를린 장벽에서 사망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1998년 건립되었다. 1.4km 길이의 베를린 장벽 기념관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남겨진 70m 길이의 베를린 장벽이 야외 전시장에 보존되어 있으며, 방문자 센터, 베를린 장벽 문서 센터, 화해의 예배당, 추모의 창문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방문자 센터(좌), 베를린 장벽 문서 센터(중), 화해의 예배당(우)

베르나우어 스트라쎬

베르나우어 스트라쎬는 베를린의 베딩(Wedding)과 미테(Mitte) 지역 사이에 위치한 도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나우어 스트라쎬를 경계로 연합군인 소련과 프랑스의 분할 점령지가 나누어졌다. 1961년 베르나우어 스트라쎬 동쪽의 주택 앞으로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면서 장벽 주변의 주택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건물을 타고 내려와 서쪽으로 도피하기도 하였다. 결국 동독 정부는 장벽 주변 건축물의 주민들을 강제로 퇴거하였고, 건물의 창문과 문을 벽돌로 막아버렸다.

그럼에도 자유를 향한 탈출은 계속되었다. 1961년 8월 청년 경찰관 콘라드 슈만이 철조망을 넘는 사진이 찍히면서 베르나우어 슈트라쎬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또한 지하를 통하는 도주용 터널이 여럿 만들어져 많은 사람이 탈출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베르나우어 스트라쎬의 국경지대로 탈출을 시도하다 십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베를린 장벽 기념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사라지면서 베르나우어 스트라쎬의 장벽 역시 철거되었다. 하지만 연극작가 피터 뫼비우스(Peter Möbius), 역사학자 헬무트 트로트노우(Helmut Trotnow), 신앙교회 목사 맨프레드 피셔(Manfred Fischer) 등은 베르나우어 스트라쎬의 장벽을 탈출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들과 도시 분단의 역사를 기리기 위하여 베르나우어 스트라쎬의 장벽을 보존하자고 주

장하였고, 베르나우어 스트라쎬의 장벽을 보존하기 위한 토론회와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같은 해에 베를린에서 베를린 장벽 기념관 건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베를린 장벽 협회(Berlin Wall Association)가 설립되었다.

1994년 베르나우어 스트라쎬의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관을 설계하기 위한 공모가 개최되었고, 1998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 기념관이 개장하였다. 옛 국경 감시탑이 베를린 장벽 기념관의 일부로서 보존되었고, 북쪽 벽에 "1961년 8월 13일부터 1989년 11월 9일까지의 도시 분단과 공산주의 폭정의 희생자들을 기리며"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1999년 베를린 장벽 문서 센터가 개관하였고 2000년에는 베를린 장벽 건설로 철거되었던 화해의 예배당이 재건되었다. 2006년 베를린시는 베르나우어 스트라쎬의 베를린 장벽 기념관을 베를린 분단의 중심시설로 지정하였다. 2009년 베를린 장벽 기념관의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방문자 센터가 개장하였고, 2010년에는 베를린 장벽을 넘다가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사진이 걸려 있는 12m길이의 추모의 창문이 세워졌다.



옛 베를린 장벽을 상징하는 기둥(좌), 국경 감시탑(중), 추모의 창문(우)

전시내용

베를린 장벽 기념관의 프로그램은 크게 베를린 장벽과 옛 국경 감시탑을 포함한 야외 프로그램과 베를린 장벽 문서 센터의 실내 전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야외 전시장에서는 베를린 장벽의 목적과 기능, 베르나우어 스트라쎬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베를린 장벽과 국경 감시탑의 유물과 흔적이 보존되어 있으며, 장벽이 건설되면서 파괴되었던 건물 잔해도 함께 남겨져 있다. 야외 프로그램은 ‘베를린 장벽과 죽음의 지대’, ‘도시의 파괴’, ‘장벽의 건설’, ‘장벽에서의 삶’ 등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를린 장벽과 죽음의 지대’에서는 베를린 장벽의 국경 관제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동독의 독재정권이 베를린 장벽을 어떻게 권력 유지의 중추적인 도구로 활용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다. 해당 구역에 위치한 추모의 창문에서는 베를린 장벽의 희생자들과 부상자들의 인적사항이 적혀있어 방문객들이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기릴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도시의 파괴’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베르나우어 스트라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초점을 맞추었다. 장벽 건설 전후 국경지대 주민들의 삶과 베를린 장벽 건설로 철거된 화해의 교회와 도주용 터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장벽의 건설’에서는 베르나우어 스트라쎬에 위치한 베를린 장벽과 국경 감시시설의 건립과정과 정보원, 인민경찰, 자원 보조자 등 감시 경계 체계에 참여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장벽에서의 삶’에서는 장벽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하여 진행된 행진, 동서 프록과간다 사이의 충

돌 등 장벽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을 설명하고 국경 경비원, 서베를린의 군인 등 장벽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베를린 장벽 문서 센터에서는 상설전시 프로그램인 “1961 | 1989. 베를린 장벽”을 운영하고 있다. 420㎡ 넓이의 전시공간에 설치된 여러 관련 유물과 당시를 회상하는 증언을 담은 오디오·비디오 미디어를 통하여 베를린의 분단 역사와 함께 베를린 장벽이 세워질 당시의 정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동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장벽이 철거되는 상황을 상세하게 전시하고 있다. 한편 방문객들이 독일 분단의 역사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하였다.

베를린 장벽 기념관에서는 이러한 전시 프로그램과 함께 현장 가이드 투어도 제공하고 있다. 8-12세 사이의 어린이와 함께 방문한 가족을 위하여 장벽에 그려진 벽화의 유래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미술 전문가 투어’,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 발생한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을 소개하는 ‘장벽 건설 이후의 베르나우어 스트라쎄 투어’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장벽 건설 이후의 베르나우어 스트라쎄 투어’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베를린 장벽을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방문객이 카메라를 들고 베르나우어 스트라쎄 주변을 찍으며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카메라로 과거를 추적하기’나 학생들이 직접 베를린 장벽 기념관의 전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관련 주제를 발표하는 ‘역할 반전: 박물관 가이드로서의 학생’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일 오후 현장에서 가이드들이 방문객들의 질문에 답해주는 라이브 스피킹과 QR코드를 활용한 안내 서비스 및 온라인 전시도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 베를린 장벽 기념관 <https://www.stiftung-berliner-mauer.de>
- 위키피디아 <https://de.wikipedia.org>